

무안군 '미니단호박' 농가 소득원 각광

1읍면 1특화작물 육성사업 대표 작목...올해 9농가 1ha 수확

크기 작지만 높은 당도 자랑...1동당 500~600만원 수준 예상



무안군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니단호박이 5월 말부터 본격 수확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시범 재배를 통해 첫 출하했던 무안산(産) 미니단호박이 올해는 9농가, 1ha에서 일제히 수확작업에 들어간다.

기존 노지 단호박의 4분의 1 크기인 미니단호박은 350g~400g정도 되며, 시설하우스 폴리네트에 덩굴을 뻗어 공중에 열매가 달리는 방식으로 재배된다.

한 주당 7~10개까지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높은 당도와 표면 광택을 자랑하면서 최근 웰빙 간편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농가소득 향상에 효과 노

릇을 특목히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니단호박은 1동(660㎡)당 소득이 일반 노지 단호박 보다 다소 높은 500~6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군은 미니단호박의 이 같은 소득을 예상하고 점진적으로 생산인프라를 확장하여 2019년에 시설하우스 1ha, 2020년 0.5ha, 2021~2022년 3.5ha로 총 5ha, 100톤의 미니단호박을 생산해 10억여 원의 소득을 목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니단호박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니단호박이 '1읍면 1특화작물 육성사업'에 대표작목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본격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0월까지 진행

목포시가 대한민국 제1의 수산식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

목포시는 지난 5월29일 시청 상 황실에서 김종식 시장, 자문위원, 용역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계획된 사업들의 규모와 기능, 시설 등의 적정성과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목포 대양산단 2만8133㎡ 부지에 총 사업비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2022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해조류의 수산식품화 연구개발 시설, 국제수산물거래소, 가공공장, 냉동보관시설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1,68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6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297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그동안 목포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집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산업 수준은 미비했다. 수산물 가공과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목포를 대한민국 제1의 수산식품 도시로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

"천사대교 등 1004섬 비교우위의 문화·관광자원도 홍보"

신안군과 신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남상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내고장알리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101명을 대상으로 신안군 관광협의회 사무실에서 1004섬 비교우위의 자원을 폭넓게 알리는 소양교육을 지난 5월 2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광협의회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 회복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함으로써 힘들고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읍과 중부권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700만명에 이르고 최근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70여명의 내고장 알리미를 육성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중부권에 있는 압해 에로스서각박물관, 안좌 화석광물 박물관, 자은 수석미술관, 조개고동박물관, 천사분

재공원 팀장, 퍼플교가 있는 가고 싶은 섬 팀장 등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는 전문가사진을 초빙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천사(1004)섬 공원화 사업, 세계적 해양생태의 중심 신안, 품격 있는 문화생활 향유, 맞춤형 교통복지로 편리한 신안, 퍼플 섬 반월반지도, 12사도 대마 마을 기적의 순례길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책 사업을 소개하고 천사대교 개통과 여객선 야간운항 재개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 육·해상 교통체계에 대한 교육내용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내고장알리미와 문화관광해설사 등 101명은 침체된 경기로 실음에 빠진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용기와 힘을 주는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 대회도 함께 가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도1무지엄 건립과 섬마다 푸른 숲이 있고 사계절 꽃이 피는 지역으로 바꾸어 신안군 문화도시조성, 꽃 박물관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SNS를 통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장미 만개

"꽃보며 지친 마음 달래요"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에 위치한 영광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장미원의 장미가 만개하여 방문객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영광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은 2010년에 조성됐으며 총 부지면적 34,429㎡ 중 장미원 면적은 3,600㎡이며 장미 71종 23,229그루와 조형물 아치형 터널 4개소, 파이프 삼각주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군은 아름다운 장미꽃 경관을 연출을 위해 지역에 알맞은 월별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장미의 건전한 생육이 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 제초작업, 퇴비 시비, 병충해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영광 생활체육공원을 지속적으로 찾고 이용하는 군민을 위해 장미꽃이 진 후에도 계절별 볼거리와 변화감을 제공하기 위해 여름꽃, 가을꽃 등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세계적 꽃피는 공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 선정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함평 천지, 나비가 날다'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5월29일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휴·폐업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전국 차단체를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을 공모 접수했다.

올해는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국 10개 상권을 선정하고 개소당 4억 원씩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읍 공용터미널에서 농

협 함평군지부에 이르는 약 350m 구간의 중앙길 골목상권을 신형, 이번에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국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상구간 내 상가 외부 경관을 지역 대표 이미지인 나비를 테마로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앙길 골목상권이 또 하나의 지역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참여한 골목경제 공동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확은 생애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